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짙을 한해 풍성했던 나눔의 현장

# 사랑 모아 희망 나눔... 그들이 있어 행복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과 문화를 나누는 손길은 분주했다.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아낌 없이 내놓았고, 문화단체들은 감성과 흥미를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과 소통을 시도했다. 또 기업체와 개인들은 기금을 내놓거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문화나눔에 힘을 보탤었다.

2차례에 걸쳐 1년간 진행했던 '문화 나눔' 현장을 결산하고 문화나눔이 지속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 공사)와 SK 텔레콤 등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은 '문화 나눔'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토지공사는 해남 등 군 단위 지역을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랑이 꽃피는 콘서트'와 미술가를 꿈꾸는 불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피카소의 꿈'을 진행했다. 또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수완지구에 야외 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 한국토지공사 등 메세나 눈길

SK텔레콤은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클래식 음악 교육의 문턱을 낮춰 소외 계층 학생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해피뮤지컬'을 운영중이다. 특히 SK텔레콤이 (사)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진행중인 '해피뮤지컬'은 내년 부터는 전국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조적 문화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울산은 지역에서는 드물게 메세나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공업도시'로 인식됐던 울산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기업 문화 단체' 등을 내건 메세나 운동'을 이끌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올 3월에는 SK에너지 등 16개 사가 19개 문화단체를 후원했으며 12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14개 기업이 지원협약을 맺었다.

### 지원 없이 십시일반 정성 보태

정부나 지자체의 프로그램 공모에 당선되거나, 기업체의 체계적인 후원을 받아 문화 나눔을 진행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았지만 순수하게 개인과 몇몇의 후원자들 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눈에 띄었다.

가수 예민이 지난 2001년부터 열고 있는 '예민의 분교음악회'는 전적으로 예민과 그를 곁에서 돕는 봉사자들이 꾸려가는 프로그램이다. 2001년 한해에만 무려 120차례가 넘는 음악회를 열었던 예민은 최근까지 180여회 공연을 마쳤고 앞으로는 아시아 오지에서 작은 학교 음악회를 열 꿈을 꾸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광주 지역 양로원 등을 찾아다니며 400회가 넘는 음악회를 진행한 '사랑 실은 노래봉사단'은 공연 경비 대부분이 단장인 김효중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밖에 10년째 보육원에서 아동극을 공연하고 있는 광주 지역 여성연극인들의 모임 '여우회' 역시 기금 지원 없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행사를 꾸리고 있다. 또 시골 교회와 불우 이웃 시설에서 공연을 갖는 음악단체 상투스앙상블은 단장 이선행씨가 운영자금을 전액 내놓았다.

### 예술인들 참여 든든한 버팀목

다양한 문화나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이들은 역시 예술인들이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정부 기금이나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그램 역시 예산이 적다 보니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버거운 실정. 그래서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바이올린을 제공하고 강습을 진행하는 '사랑의바이올린'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전국의 어린이 병동, 지역 공부방, 교회 등에서 350여명의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한차례씩 꼬박 꼬박 아이들을 만나 바이올린을 가르쳤다. '사랑의바이올린' 홍보대사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씨와 함께 300여명의 아이들이 서울의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봉사자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가르침 덕이었다.

'해피뮤지컬'과 '해피뮤지컬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첼리스트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뮤지컬 음악감독 원미술 등 쟁쟁한 실력을 갖춘 예술인들이 무보수로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활기를 불어넣은 덕이었다.

### 체험 위주 독특한 프로그램

'문화 나눔' 현장에서 만난 프로그램은 다채로웠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보다는 직접 체험해 보는 행사가 많았던 것도 특징이다.

우제길 미술관이 진행한 '감+촉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시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세광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미술 작품을 만져보고 향기와 촉감, 소리 등을 통해 느낌을 배워가는 프로그램이었다. 명지미술관의 '꿈 프로젝트'는 광주고용정보보고(옛 소년원)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그림 작업을 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미술관에 전시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31사단, 함평 국극병원 등을 직접 찾아가 진행한 '밀리터리 뮤지엄' 역시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며 자신들이 만든 뮤지컬과 탭댄스를 직접 무대에 올리는 대구 청소년문화공동체 '틈새'의 작업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대와 목포대, 목포여성의 전화 등이 진행한 '인문학 교실'은 노인, 저소득층 주민,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농민 등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열려 세상 보는 지혜를 제공했으며 전남대는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 백암온천과 신비의 비경인섬

백암 울릉도 2박3일 매주 토요일 출발 1인 23만 5천원

세비	세비	세비
<b>문주-백암(한방사방)</b> 1박2일 숙박비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b>문주-울릉도(한방사방)</b> 1박2일 숙박비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b>문주-신비(한방사방)</b> 1박2일 숙박비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1인 12만 5천원

남해고속도로 1번지선 1번출구

### 남해고속도로 1번지선 1번출구

국립공원관리공단 1-588-228-0000 1-588-228-0000

## 만드셨다 혁신의 신행예금!!

뉴-우 북 자립시대

한시모집

12개월 7.2% = 8.4% (연평균)

7.1% = 8.3% (연평균)

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
형제예금	7.0%	7.1%	7.2%
기간	1년	2년	3년
형제예금	6.0%	6.1%	6.2%

광주문화신행

문의처: 020-4158 (광주지점) 020-4159 (부산지점) 020-4160 (대구지점) 020-4161 (서울지점) 020-4162 (인천지점) 020-4163 (대전지점) 020-4164 (충청지점) 020-4165 (전남지점) 020-4166 (전북지점) 020-4167 (경상지점) 020-4168 (제주지점)